

최용수 감독 “이영표와 함께 살아남겠다”

(강원 새 사령탑)



28일 친정팀 서울 상대 데뷔전 “물러서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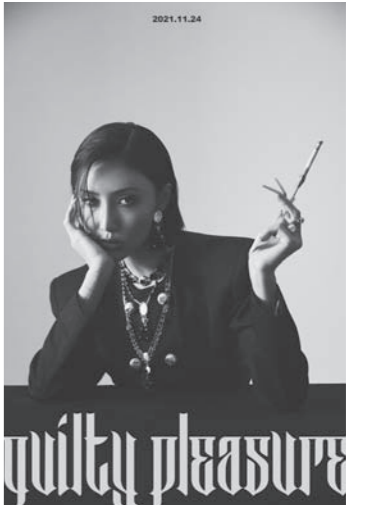
11위 강원, 강등 위기 최하위 광주와 승점 3점 차

강등 위기에 처한 프로축구 K리그1 강원 FC의 '소방수'로 나선 최용수(48) 감독이 이영표(44) 강원 대표이사의 비전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18일 강원도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영표 대표의 비전을 듣고 감독직을 수락했다. 강원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강원은 9승12무15패(승점 39)로 K리그1 12개 구단 중 11위에 처져 있다. K리그1 최하위는 K리그2(2부리그)로 다이렉트 강등되고, 11위는 K리그2 승격 플레이오프(PO)에서 승리한 대전한스타이즌과 12월 8일과 12일 승강 PO를 통해 잔류 여부를 결정한다. 최 감독은 “힘든 상황에 놓인 건 사실”이라며 “전임 김병수 감독님이 매력적인 축구를 하였고, 평소 좋아한 선배다. 하지만 내가 어떤 팀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이 올해 16경기 중 역전승이 1번밖에 없다. 뒷심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멘탈적으로 일찍 포기하고 그런 점이 데이트로 나와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헌신하고 팀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한다. 그런 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널B(7~12위)에 속한 강원은 스플릿라운드 2경기를 남겨뒀다. 오는 28일 FC서울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2월4일 성남FC와 홈 경기를 갖는다. 뒤에선 최하위 광주 FC(승점 36)에 승점 3점 차 추격을 당하고 있고, 바로 위 10위에는 성남(승점 40)이 승점 2점 앞서 있다. 강원으로서 서울전을 무조건 잡은 뒤 성남전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최 감독의 데뷔전 상대는 지도자로 전성기를 보낸 친정팀 서울이다. 그는 “서울은 제 뿌리와 같은 팀이다. 축구 인생을 거의 서울에서 보냈다. 하지만

축구는 도전의 연속이다. 강원에 와서 과거에 연연하면 좋은 상황이 안 나온다. 스스로 절박함을 갖고 접근할 것이다. 서울전은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최 감독은 그동안 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야인으로 지내던 최 감독의 마음을 움직인 건 후배 이영표 대표이사의 비전이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진정성이 느껴졌다. 소통하면서 역할 분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큰 성취감을 누릴 수 없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은 작용을 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후배다. 이 대표가 걸어온 길은 화려하다.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타난 것이다. 각자 할 일이 많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드일리/뉴스



마마무 화사가 '블레스 유(Bless U)'의 무드 샘플러와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화사, 두 번째 싱글 무드 샘플러 공개

'길티 플레저' 24일 발매

마마무 화사가 '블레스 유(Bless U)'의 무드 샘플러와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18일 소속사 RBW는 공식 SNS를 통해 화사의 두 번째 싱글 앨범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 수록곡 '블레스 유(Bless U)'의 무드 샘플러와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흑백으로 처리된 영상 속 화사는 촬영에 몰입한 모습을 보였다. 레트로 감성이 묻어난 세련된 스타일링을 통해 우아함을 뽐냈다. 또한, 수록곡 '블레스 유(Bless U)'의 감각적인 기타 리프 사운드까지 더해졌다.

콘셉트 포토에서 화사는 깔끔한 헤어스타일로 고전적인 화려함을 뽐냈다.

'길티 플레저'는 오는 24일 오후 6시 발매된다. 화사는 1년 5개월만의 솔로 신보를 공개한다. 타이틀곡 '암어빛'(I'm a 빛)은 처음으로 외국 프로듀서진들과 협업한 솔로곡이다. 화사는 작사에 참여했다. 스카이드일리/뉴스



인형별 기사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인문문화예술 최고위 강의

민경두 대표 “자유는 차별 감수한 고통의 창조 에너지” “자유 기반한 차별적 양심으로 일 가치 공동선 확장돼”

민경두 웨일레이션(모하포럼) 대표는 17일 “우리가 평소 공기처럼 소중함을 잊고 사는 자유의 실체는 차별과 불평등까지 감수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가는 치열한 생명 에너지의 원천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 대표는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인문문화예술 최고위 강의에서 “차별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부정하면 생명 그 자체인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빈곤의 역습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며 같이 말했다. 민 대표는 “우리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근간은 차별을 기반으로 한 자유의지에 있기 때문에 차별이 책임의 토양이자 궁극적으로 이타적 양심과 사랑의 샘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은 자유가 치열하게 생명력을 발휘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자유와 시장은 분리할 수 없는 한몸”이라며 “평등이라는 무소불위 휴머니즘 칼을 들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자유가 속박돼 휴머니즘이 오히려 말살되는 사선(死線)의 운명을 불러들인다”고 피력했다. 자유의 실체에 대해 그는 “주기율표상 반도체와 같은 14족 원소 탄소 결합을 통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된다는 것은 힘을 더하는 생명의 가속운동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자유는 필연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늘의 순리를 품고 있어 고통과 고난을 수반한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천체의 원 운동과 중력 때문에 3차원 가속계에서 단 한시도 벗어나



민경두 대표가 동국대에서 '사랑의 궁극적 이상이 자유시장과 경쟁 속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부(富)의 가치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지 못하는 인간에게 자유라는 가속운동은 생명유지 환경 자체일 뿐만 아니라 신의 역할에 버금가는 부동(不動)의 동자(動者) 역할까지 선사받은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민 대표는 “그 어떤 휴머니즘 명분으로도 자유가 통제되면 역전(逆天)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전제하고 “인류에게 한때 이상적인 휴머

니즘으로 다가온 공산주의(사회주의) 평등이 그 상징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유를 통해 일어나는 가속운동이 곧 일자 노동의 가치다. 일은 시장에서 이기적 경쟁을 하도록 하지만 모두에게 이로운 부가치 네트워크를 선순환 확장시킨다”고 일갈했다. 민 대표는 “공동선의 진짜 가치는 풍성

한 열매를 맺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차별적 노동의 가치를 각 개인들이 수용하는 양심으로 피워진다”며 “이를 인위적인 무차별 사회로 만들려 하면 공동선의 허울을 쓴 채 공동선을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가족이 공동선을 시작하는 무한 책임의 시작이라면 일은 가족들 간 이기심 경쟁을 극복하게 해 주는 사회 또는 국가 차원의 공동선 매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근면한 근로의식이 상실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망한다”며 “그래서 근로의식을 훼손하는 평등이나 인권 등 화려한 이름을 내건 위선적인 위정자나 권력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 대표는 “인간의 개인적 소유욕은 마치 태양처럼 강렬하게 이글거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유욕을 방해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어 자유의 샘은 멈추지 않는다”며 “진정한 사랑과 양심의 원천은 소유욕이라는 이기적 욕 속에 있는 이타적 영혼을 보고 자유를 소중하게 인식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인형별 기사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

홍찬선 지음 | 352P 18,000원

- 이 소설은 샘(泉)이다. 작가가 짧은 기간 내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쏟아낸 샘이고, 우리가 이야기해 풍긋하면 다음 날 지기 얼굴을 보게 되는 샘이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시리디 시리게 맑은 샘이다. 정겨웠던 한국 농촌에서 때 묻지 않은 아이의 눈동자로 퍼 올린 샘이다. - 최문형(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겸임교수, 작가, 칼럼니스트, '식물처럼 살기' 저자)
- 이제 겨우 걸음마를 뚝 초보 소설가로서는 돈키호테 같은 말로 들린다. 하지만 “꿈은 아름답고 상상은 즐겁다. 삶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가 조국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타처럼 얽혀있는 갈등을 푸는 불쏘시개가 된다면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세계일보>
-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가치 전도의 세상에서 진영논리에 얽히지 말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품격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배고픈 시대가 지났는데도 조화보다는 갈등, 협동보다는 투쟁적이라면 김구 선생이 언급한 문화국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원뉴스>
-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실천가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는 초인, 니체가 아닐까. 아니라면서 늘 거기에 서 있다. 아주 큰 나무 같은 사람. 그래서 오라버니 품처럼 정겹다. 소설집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도 그렇게 읽힌다. 그가 말하는 촌놈은 사상이고 철학이다. 그가 좋다. 사람 냄새가 나서 참 좋다. <이태경 시인>
- 자신의 어렵던 시절을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용기다. 그런 용기는 현재의 만족함에서, 어느 고지에 다다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힘이다. 더 어렵고 더 힘겨운 소설 같은 과거사를 보자기에 신주단지처럼 포장한 사람들은 이런 용기를 부러워 할 것이다. 여러 야채를 위에 계란 하나 올리고 새콤한 유자 소스 얹은 샐러드 같은 한상처럼 잘 받았다. <신경자 숲해설가>



홍찬선의 또 다른 작품!

- <임시정부 100년 시대 조국의 기생충은 누구인가 / 27,000원>
- <삼 DMZ해원가 / 20,000원>
- <얼-3·1정신 혼찬송 / 15,000원>
- <길 - 대한제국 진혼곡 / 23,000원>
- <일제종주주의 / 홍찬선 외 5인 공저 / 21,000원>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관련 문의: 070-7868-8799

